



주 제:	“자비와 용서의 주님.”	“사순 제 5 주일” (다해)	2007년 3월 18일
복음 묵상:	요한 8,1-11	이사 43,16-21	필리 3,8-14

예수님은 세상을 단죄함으로써 구원하고자 했던 분이 아닙니다. 율법학자들은 10 계명을 들어서 세세한 행동규정들을 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케 했습니다. 일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규정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. 법규를 어겨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바쳐야 합니다. 그래서 성전은 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. 예수께서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. “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!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.” 예수님은 단죄가 아니라 용서로써 사람을 구원합니다.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.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.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.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.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, 구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은총입니다. (안동 조창래 신부님 강론중에서)

성가대 소식

1. 이제 **부활절이 2 주**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.
2. 김 효식 필립보네리 형제님 자제 **Sephen** 군이 “The promethens Symphony Orchestra”에서 violin 독주를 하는 연주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많이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일시: 3월 25일 3시

장소: St. Paul Episcopal Church

114 Montecito Ave. Oakland, CA 94610

3. 추환영

신 행주 요세피나 자매님 새로 입단하셨습니다. Alto 파트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.

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새로운 가족을 위해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**새로생긴 본당 웹 주소:** <http://67.15.255.6/~sjkorean/?q=node/1142>

교인으로 등록하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어 좋은 성가대 싸이트로 만들어갑시다.

글뿐만아니라,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리도록 되어있으니 많이 올려 주십시오.

5. 기도 요청

- 서병문 바오로 형제님 3월 17일 한국에서 화족을 밝힐 예정으로 출국하셨습니다. 3월 25일 신혼여행 후 돌아오실 예정입니다. 좋은 새 가정의 출발이 되시길 기도합니다.
- 금주 강인경 세실리아 자매님 LA로 여행가십니다. 여행중 주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.
- 전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, 3/5일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. 여행중이신 모든 단원 가족님들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여행 되시길 기도합니다.
- 신이원 레지나 자매님과 강보영 루시아 자매님, 심한 목감기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. 건강주시길 기도중에 청해주시시오.
-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의 친정어머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.

+ 복음 [요한 8,1-11]



“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.”(요한 8,7)
 “Let the 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.”